



한리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字日報 제10529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00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6년 1월 27일 화요일(음력 12월 9일)



새 옷 입는 성읍민속마을 초가 26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에서 주민들이 새해를 맞아 제주 전통 초가 지붕을 잇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3년 이내 건설자재 대란 우려”

한국암반공학회, ‘제주 토석 채취·활용’ 연구 용역

“도내 9개 채석장 토석 조만간 바닥… 악화 심화될 것”
채석장 공영개발·채취 깊이 40m→60~70m 검토 주문

제주지역에서 앞으로 3년 이내에 건설 자재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도내 채석장들이 채취하고 있는 흙과 암반이 조만간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의뢰로 사단법인 한국암반공학회가 수행한 ‘제주 실정에 맞는 토석 채취 및 복구·활용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도내 9개 채석장이 허가 받은 토석(골재) 채취 물량은 1167만 7000m³로 이중 82%인 963만 7000m³에 대한 채취가 끝나 현재 남아 있 는 토석은 204만m³(지난해 5월 기준)다. 이는 정부가 올 해 제주 지역에 공급하기로 계획한 1년 치 물량보다도 적은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4년 12월 수립한 ‘골재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올해 제주에는 204만 8000m³를 비롯해 2027년 206만 2000m³, 2028년 207만 6000m³에 이르는 골재 를 각각 공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골재는 각 지역에서 자체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족하면 해당 지역 주택 공급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국가는 각 지역 간

골재 반·출입 물량을 조정하기 위해 이런 수급 계획을 수립한다. 단 정부 수급 계획은 순환골재(건축폐 기물을 재활용 한 골재) 등을 반영 되지 않아 실수요보다 적게 산정되는 특징을 보인다.

정부가 올해 전망한 도내 골재 수요도 공급 계획량보다 약 40% 많 은 342만 7000m³다. 실제로 제주지 역 골재 자체 생산량은 해마다 수 요에 못 미쳐 건설 경기가 나빴던 지난 2024년에도 180만m³를 다른 지역에서 들어왔다. 이는 건설 자 재값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 공급까 지 동반 상승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역진은 도내 9개 채석장 내 남 은 토석량을 고려해 2028년까지 자

체 조달할 수 있는 골재량을 한 해 평균 40만m³로 추정했다. 이는 공 급 계획량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 이다.

용역진은 “가체량(앞으로 채취 할 수 있는 양)이 소진되고 9개 채 석장 중 2028년 사이 6곳의 (채취) 인허가 기간이 만료돼 추가 채석 관련 방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골재 대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부족한 골재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석장 추가 개발이 있지만 환경 훼손 논란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도내에서 민간이 채석장 신규 개발에 나서거나 연장 허가를 신청할 때마다 환경단체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상민기자 ihalla@ihalla.com

▶ 2면으로 계속

전국 첫 ‘RE100 제주감귤’ 출시… 3면 / 제주경찰, 필로폰 밀반입 조직원 12명 검거… 4면

제주의 맛, 그대로.
손길의 정성, 그대로

제주의 바다와 들에서 얻은 재료,
그리고 제주웰링의 정성 어린 손맛.
몸이 편하고 마음이 쉬어가는 한 끼,
그게 바로 제주웰링입니다.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 725-1100

깊고 맑은 제주의 맛이 스며드는 한 끼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신한에코 | 제주 전통방식으로 직접 조리한 식품

따뜻하게 데워 간편하게 집밥의 맛을 느껴보세요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기존 식당 메뉴에 추가를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
행사, 도시락, 단체급식 등에 추천드립니다.